

독도소식지 13호를 내면서

독도소식지 13호를 몇 일 늦게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독도소식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신은 독도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지켜야합니다. 독도 수호 운동에 참여하세요. 도와주시면 좀 더 좋은 소식지가 됩니다. 편집자

日독도뺏는 방법은 국제재판

http://cafe.daum.net/anadok/N4Y/250
위 주소는 관련 글이 있습니다.



일본은 1954년에 독도를 국제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ICJ에 재소를 했다. 그러나 우리는 거부를 해서 재판을 안 하게 되었다. 독도문제로 전쟁이 일어날 문제가 전혀 없었다.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법으로 고치려고 한다. 아베 총리가 혹 이번에 법 고치는 것을 실패 하더라도 언제 전쟁 하는 법으로 고쳐질지 알 수가 없다. 중국이 다이오다오(센카꾸)에서 하는 것 같이 일본이 독도에서 한다면 금방 큰 분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역대 우리정부들이 우선 큰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조용한 외교를 한 것은 큰 분쟁이 일어나면 더욱 불리하게 만든 것이다. 일본 민간들이 자기 땅 탈환 한다는 명분으로 독도에 올라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체포를 하려고 하면 반항을 해서 양쪽에 사상자가 나게 마련이다. 총으로 사살을 한단 말인가? 국제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아주 다분하다. 우리는 국제재판에 가기 전에 일단 국제 재판 준비는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 손해 볼 것이 있나?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독도 이상훈

국제재판 준비 방법

1.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면 재판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자유를 보장해서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하고 우리의 사법 행정이 많이 미치면 재판에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
3. 독도의 관광지개발을 통하여 관광수입과 함께 국내,외에 홍보하면 재판에 유리하다.
4. 독도를지킨독도의용수비대를국가최고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기려주면 한국은 독도에 주권을 미친 근거로 재판에 유리하다.
5. 잘못 맺어진 신 한.일 어업협정을 계속 그대로 두면 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이 없는 것이 굳어져서 국제재판에 불리하다. 한국이 독도 배타적 경제수역주권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국제재판에 유리하다. 재판 안 해도 준비는 해야 한다.

독도 100년만 가지면 완전한 우리 땅이 된다. 일본이 무슨 말을 하거나 가만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일본인 쓴 글이다. 한국인 일본 주장을 묵인 하라고 한 말이다. 유끼노 문서라고 한다.

독도사수연합회 독도 이상훈

北, 공식 한반도기 독도 표기 제의, 우리측 거절... '외교적 갈등 우려' 두 차례나 거부

2006년 10월 30일 (월) 15:08 고뉴스

(고뉴스=홍경환 기자)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이 30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남북체육회담에 서북측의 독도 표기제의를 우리가 거절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남북올림픽위원회는 2005년 12월 7일, 2006년 6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개성에서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개최된 바 있다고. 이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단일팀 명칭 △단기 △단기 △선수 선발 △남북공동위원회 및 공동사무국 설치 등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체육회담의 합의 실패 이유로는 선수 선발, 훈련 문제만이 거론되어 왔으나, 본 위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기(單旗) 협상 과정에서 북측의 '독도' 표기 제의를 우리 측이 두 차례 모두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 회담에서 북측은 '세계가 우리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알게 할 필요가 있다'며 독도 표기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은 '바꾸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한반도와 제주도만 표기하자며 거부했다는 것. 2차 회담에서 북측은 '흰색바탕에 독도 표기된 하늘색 한반도 표기를 제안'하며 독도 표기 의사를 고수했는데, 남측은 '독도표기문제는 외교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또 다시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정부는 올해 초 독도 대책과 관련하여 '조용한 외교'를 주장하다 실패를 자인하였는데, 결국 정부의 태도는 '조용한 덮어두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arme99@gonews.co.kr <인터넷 신문 공인 1등 고뉴스 © 고뉴스 www.go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애국가(愛國歌)의 상처 역사학 박사 朴鍾潯 (모스크바 대학 교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국경일이나 다른 크고 작은 행사에서 또는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도 의례히 부르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애국가는 한민족의 독립과 국토의 보존을 염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어 부르거나 들을 때면 감격스럽기도 하고 숙연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불행한 민족분단의 아픈 현실을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이 애국가의 작사자는 지금까지 미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작곡가는 유명한 지휘자 안익태(安益泰) 선생으로 알려져 있다. 독립을 잃은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선생이 1936 손기정 선생이 베를린 하계(夏季)올림픽에 마라톤 선수로 출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국가 가사에 곡을 붙여 바이올린 독주로 음원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음원가에 군중은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손기정 선생에게는 3천만 한민족이 응원하는 함성소리로 들려 신의 힘을 다해 1등을 했다는 말도 있다. 가사는 알고 보면 한말에 독립을 소망하며 여러 애국단체에서 각기 독립과 국토를 보존하자는 마음으로 제각기 만들어 부르고 있던 노랫말들을 수집해 윤치호(尹致昊)선생이 지금의 애국가로 편집했다는 말도 있다. 그 시기에는 어디 남북이 따로 있었는가? 오직 민족의 독립과 국토보존만을 기원하였을 것이다. 그 후 이 애국가는 1948년 이승만대통령 취임식에 최초로 부르면서 오늘날 한국의 공식적인 국가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애국가의 핵심이 되는 노랫말인 백두산(白頭山)과 동해(東海)물이 요즈음 상처를 받고 위협에 처해있다. 동해물은 일본물이 되고 백두산은 중국에 잘라져 나갔다. 게다가 요즈음에는 일본이 동해의 중심부에 위치한 독도(獨島)를 일본해에 있는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약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나, 한국은 조용한 외교며 실리외교라는 말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일본은 자신을 얻어 기세가 등등해지고 국제적으로 자국영토로 선전하고 주장하는 노력을 부단히 하였다. 그리고 독도를 중학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방위백서에 자국영토로 명문화 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제 일본은 언제라도 무력으로 독도를 침공

할 준비를 마친셈이다. 한편 백두산은 중국이 한쪽을 잘라가 깎아내고 파내어 비행장을 건설했는가 하면 이제는 중국어 명칭(名稱)인 장백산의 지명을 버리고 우리 백두산으로 개칭하고 또 앞으로 대규모 동계(冬季)올림픽을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까지 한다. 그렇게 되면 한민족의 백두산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백두산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산으로 인식될 것이 명백해져 민족의 발원지는 영원히 상실되어 우리역사인 고구려사는 소위 중국내의 한 소수민족의 지방사가 되고 백두산은 중국의 영토로 증발되고 말 것이다. 참으로 분통터지는 일이다. 중국은 야금야금 한민족의 조상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영토를 탈취해 우리는 조상의 피어린 역사도 잊게 되고 분향도 없는 근본 없는 민족으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대로 간다면 아마 북한은 점차적으로 중국이 지배적인 영향권에 들어가 결국은 중국이 흡수하려 들 것이며 남한도 결코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될지 모른다. 사태가 이런데도 남북한 양 정권은 체제를 앞세워 민족의 역사나 생존권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서로 적대시하며 정치지도자는 오직 자기 일신만을 위해 민족을 이용하면서 남북이 서로 헐뜯고 체제가 민족의 영토와 생존권에 우선인양 난쟁이 키 재기 노름만 하고 있다. 사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민족은 영원하여 오랜 역사의 영고성쇠를 거치면서도 조국의 영토를 지켜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고 백두산은 한민족의 성지다. 민족의 발원지를 보존하고, 동해명칭의 복원과 더불어 독도를 지켜야 한다. 따라서 동해의 독도와 민족의 발원지인 백두산을 방어하는데 남북한 민족이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남한에서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을 그리고 북한은 “금은(金銀)이 가득한 삼천리(三千里) 내 조국”을 부르고 있을 것이다. 다 이 노랫말은 독립과 영토를 보존하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이제 우리는 부르는 애국가에서 마땅히 소망을 실현하는 애국가로 남북통일과 국토보존에 힘써야 되리라고 본다.



2면에서 계속 그리고 독도사수연합회 임원 과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 합니다. 주후 2013년 5월11일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서 독도사수연합회 인천광역시 지회장 김상열 인사드립니다.

독도사수연합회 활동을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신다면 독도는 지켜집니다. 독도는 몹시 위험합니다.



독도사수연합회가 11만여명 서명 받은 서명용지입니다. (서명받아 주세요 용지는 뒷면에)



덕수궁에서 고종황제 대역으로 독도칙령을 재현하려고 입장 하는 본회 회장 독도 이상훈



독도사수연합회 부산지회장 박 대희 입니다.

저는 현재 온천4구역 주택 정비 사업조합 위원장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우연한 기회에 독도사수연합회 이상훈 회장님의 추천으로 독도에 관하여 늦게나마 관심을 가지게 된 점 다시 한번 이상훈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까지 먼저 수고하신 독도사수연합회 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독도에 무관심한 국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저는 일찍이 1998년2월13일 중국 광둥 성 광주에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고국을 뒤로 한 채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나의조국이 중요하고 귀중한 것이지 매일매일 대한민국을 밤마다 그리워하며 밤을 보낸 적이 있으며 어쩌다 길에서 우리나라 차만 쳐다 보면 그 차가 눈에서 멀어 질 때 까지 쳐다 보

든 시절이 생각합니다. 어쩌나 우리가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길 수 있는 빌미를 제 공하였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총선이니, 대선이니 당리당락을 위하여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때 독도사수연합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님들은 이 시간에도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독도사수연합회 회원 여러분 저의 미려한 힘이나마 독도사수를 위해 우리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길 위하여 앞으로 온 힘을 쏟아 독도사수에 정진 할 것을 국민여러분과 독도사수연합회 회원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회원님 가족에 항상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십시오.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부산지회장 박 대희 올림



독도의 동도 산위에 독도사수연합회 기가 펄럭이다.

인천광역시 지회장 김상열 인사드립니다.



대 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1-96번지(101필지) 우리 땅 독도를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독도사수연합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 거리와 시간 관계로 직접 찾자 뵈지 못하고 이렇게 글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옛 문헌이나 어디를 찾자 봐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임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일본은 지난 2차 대전의 잘못 된 국제 범죄의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독도를 뺏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행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독도의 주인입니다. 일본의 그런 행동을 일본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날 까지 갈수록 심해 질 것입니다. 일본의 잘못된 야심과 망동을 막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독도의 주인인 우리 독도사수연합회가 앞장을 서고 온 국민이 독도사수연합회의 회원이 되어 국력을 합심하여 일본이 잘 못 된 야망과 행동을 지구상 모든 나라에 알리고 일본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 하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합심된 모습과 힘을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 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치안을 맡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고 있는 우리 땅 독도를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인이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정신 이상자들은 정신병원에 분리 수용하듯이 저에 생각으로는 일본을 지구상 밖의 우주 공간 같은 곳에 분리 수용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병자들은 잘 못 된 행동에 피해 입는 선의에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지금이라도 일본이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 하고 사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빠를수록 좋은 것 입니다. 지난날에 일본이 자행한 전쟁과 침략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스 살포와 생체 실험 위안부 문제 등 수많은 범죄 행위 등의 죄 값으로 인해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쓰나미나 화산 폭발 등 일본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반성하지 못 한다면 일본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천재지변의 재해가 아니라 일본이 자초한 죄 값인 일본 극우파들이 스스로 자초한 인재입니다. 일본의 살길은 지금이라도 일본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나라에게 사죄하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도둑질 하려 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범죄 행위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 입니다. 독도의 주인인 우리가 지킵시다. 국민 여러분 **지면상1면에**

게 글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옛 문헌이나 어디를 찾자 봐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임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일본은 지난 2차 대전의 잘못 된 국제 범죄의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독도를 뺏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행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독도의 주인입니다. 일본의 그런 행동을 일본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날 까지 갈수록 심해 질 것입니다. 일본의 잘못된 야심과 망동을 막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독도의 주인인 우리 독도사수연합회가 앞장을 서고 온 국민이 독도사수연합회의 회원이 되어 국력을 합심하여 일본이 잘 못 된 야망과 행동을 지구상 모든 나라에 알리고 일본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 하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합심된 모습과 힘을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 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치안을 맡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고 있는 우리 땅 독도를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인이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정신 이상자들은 정신병원에 분리 수용하듯이 저에 생각으로는 일본을 지구상 밖의 우주 공간 같은 곳에 분리 수용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병자들은 잘 못 된 행동에 피해 입는 선의에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지금이라도 일본이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 하고 사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빠를수록 좋은 것 입니다. 지난날에 일본이 자행한 전쟁과 침략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스 살포와 생체 실험 위안부 문제 등 수많은 범죄 행위 등의 죄 값으로 인해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쓰나미나 화산 폭발 등 일본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반성하지 못 한다면 일본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천재지변의 재해가 아니라 일본이 자초한 죄 값인 일본 극우파들이 스스로 자초한 인재입니다. 일본의 살길은 지금이라도 일본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나라에게 사죄하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도둑질 하려 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범죄 행위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 입니다. 독도의 주인인 우리가 지킵시다. 국민 여러분 **지면상1면에**

『1910년 韓日병합조약』 유효론과 獨島 領有權 문제10편



일본의 전쟁 책임을 면제시킨 연합국들 특히 미국의 정치적 편의주의에 편승하여 이를 바탕으로 1951년『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발효 직후 어떤 형태의 반성과 사죄도 완강히 거부하는 일본의 기고만장한 전쟁 무책임론(無責任論)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면 1960~70년대 이른 바 냉전기간 중 일본 전후 제2세대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역시 견고한 전쟁무책임론에 빠져 있었던 것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나? 안보 전략적 이유 때문에 채택된 미국의 정치적 편의주의로 종전 직후 잔학하고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실제로 주도한 일본 왕을 전범에서 제외시키고 아무런 주저 없이 일본의 전쟁 책임을 면제시킨 미국에 의해서 군정 통치를 받은 일본 내에서는 2차 대전에 관한 전쟁 책임이나 침략의 과정과 식민 통치 기간에 자행된 일본 제국 정부나 그 군부에 의한 잔학행위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은 거의 모두 의도적으로 은폐되었으며, 더구나 그 법적, 윤리적 책임을 추궁하는 어떤 논의도 자연스럽게 배제되었다. 젊은 세대에 대한 역사 교육도 그런 선에서 이루어 졌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침략의 과정과 식민 통치 기간에 자행된 일본 제국 정부나 그 군부에 의한 잔학행위 등에 관한 기록이나 역사적 증거들은 인멸되거나 망각되어갔으며 일본 국민들의 역사 인식에 있어서 이른 바 과거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성립되어 있지 않았다. 전쟁 기간 중 독일로부터 막대한 전쟁 피해를 입고 잔학하고 야만적인 침략행위의 직접적

인 대상이 되었던 영국과 프랑스 등이 점령 통치에 참여하고 있던 유럽에서는 사정이 전혀 달랐다. 전쟁 기간 중 독일로부터 막대한 전쟁 피해를 입고 잔학하고 야만적인 침략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던 영국과 프랑스 등이 점령 통치에 참여하고 있던 유럽에서는 사정이 전혀 달랐다. 점령 통치 주체들에 의해서 나치 독일의 전범자들에 대한 처벌과 응징은 집요하고도 철저하게 계속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 국민에게 과거사에 대한 정확하고 철저한 재인식을 강조하는 정책과 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독일은 피해 국가들에게 성실하고 철저하게 사죄하고 배상함으로써만, 히틀러 식 나치 독일의 비인도성, 범죄적 침략성으로부터 현대의 독일 국가를 “구별”시킬 수 있다는 “정당성 회복의 논리”가 하나의 사회적 당위(當爲)로써 독일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독일의 젊은 세대들에게 철저히 주입되었다. 유럽과 완전히 대비되는 이러한 동양적인 상황에서 1960~70년대 이른 바 냉전기간에 일본 전후 제2세대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완고한 전쟁무책임론에 빠져 있었던 것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일본의 전후 제2세대가 특히 한국에 대해서 거의 일본 제국주의 시대애나 있었던 군국주의적인 자존심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우월감을 회복하고 철저한 전쟁무책임론에 몰입할 수 있었던 데에는 위에 지적한 것과는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다음호에 계속

이 논문은 홈페이지에서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독도사수연합회

日 자민, 참의원 선거 공약 ‘독도 영유권’ 주장 넣기로

자위대 → 국방군 대체 추진도

일본 집권 자민당이 7월 참의원 선거의 주요 공약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작년 12월 중의원 선거 때에도 시마네현 주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 행사의 정부 주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실제 올해 정무관을 파견해 한국의 반발을 자초한 바 있다.

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참의원 선거 공약검토위원회는 전날 임원회의에서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섬)과 함께 독도를 공약 초안에 포함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토문제 교육과 국

제사회에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이 함께 이번 선거에서 개헌 문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먼저 헌법 96조를 개정해 개헌 발의 요건을 대폭 완화한 뒤 평화헌법의 근간 조항인 9조 등을 개정해 자위대를 일반 군대(국방군)로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러시아 유명 작가이자 언론인인 아나톨리 살루츠키는 최근 자국 관영신문 ‘로시이스카야 가제타’에 기고한 글에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확인하는 지난 수 백년간의 역사와 지도 자료는 일본의 주장이 2차 대전 종전 결과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日검찰, "朴 대통령 독도 불법입국" 고발장 수리

조선닷컴 입력 : 2013.04.15 17:25 | 수정 : 2013.04.15 17:39

일본의 한 보수 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005년 독도 방문을 ‘불법입국’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 지난달 검찰이 이를 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松江) 지검은 지난달 28일 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정치 단체의 고발장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5년 10월 국군 헬기를 이용해 독도에 상륙했다”며 이를 ‘불법입국’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마쓰에 지검은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서도 ‘불법입국’이라고 주장하는 고발장을 받았지만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뉴스 끝

독도 이상훈 논평 일본은 국제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독도를 한국이 실효지배를 묵인 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을 불법입국으로 고발 하고 박근혜대통령을 고발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정부도 독도연구를 많이 하도록 독도연구소에 지원을 아끼지 말고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 살게 하고 독도주변 공동수역을 우리수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독도 지키자고 한다고 지켜지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해야지! 사람 살게 하자!

연일 망언·도발 日 아베총리... '뺏속까지 극우였네!'



2013-04-26 01:06 [앵커멘트]

연일 그릇된 역사인식과 망언을 서슴지 않는 아베 일본 총리. 아베 총리의 이런 행동에는 뺏속까지 극우인 그의 집안, 성장환경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두 번째로 총리직에 오른 아베. 취임 후 보란 듯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역사 교과서 왜곡과 식민지배 과거사 부정, 여기에 다른 나라들의 반발에도 일본 경제만을 생각해 엔화를 마구 찍어내는 환율 교란까지 도발 행동과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일본에서도 대표적인 세습 정치인으로 꼽히는 아베 총리는 극우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는 2차 세계대전 전범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뒤 총리까지 지낸 일본 극우의 원조입니다. 그런 외할아버지를 아베 총리는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29년 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인물은 아베 총리의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 당시 일본 외무장관입니다. 이렇게 뺏속까지 우파의 논리가 스며있는 아베 총리의 최종 목표는 전쟁 포기를 규정한 이른바 평화 헌법 개정. 이를 통해 과거와 같은 군사대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분수령은 오는 7월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마저 장악하게 된다면 아베 총리의 극우정책은 날개를 다는 셈이 됩니다. 주변국들은 물론 일본 국내에서조차 극우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베 총리의 폭주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유진[sunnyk@ytn.co.kr]입니다.

日, 독도관련 예산 88억원 확정...43%가 신규사업

(서울=연합뉴스)강병철기자=입력시간:2013.05.21 일본 의회가 최근 확정된 2013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예산에 독도 등 영토문제와 관련된 예산이 8억1천만엔(88억원)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문제에 밝은 한 소식통은 21일 "일본 외무성이 영토문제 대책비로 8억1천만엔을 2013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며 일본 의회에서 이대로 확정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영토문제 대책비는 일본 외무성이 독도 및 쿠릴열도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등과 관련해 편성한 자국 영유권 관련 예산으로 필요시 독도와 관련된 대응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일본 외무성은 애초 2013년도 예산으로 4억엔을 계상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지면상 본 기사 중단 후피나 카페에서 보세요.)

독도에 해군함정 첫 입항



기사입력 | 2013-05-10

지난 8일 독도에 사상 처음으로 해군함정이 접안했다. 민족의 섬 독도에 사상 처음으로 해군함정이 입항했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8일 해군 1함대 소속 PKG-719 정금모함이 낮 1시 25분께 해군함정으로 처음으로 독도 동도 물양장에 접안했다고 밝혔다. 군함으로서 처음으로 독도에 접안한 정근모함은 독도를 지키는 독도경비대에게 해군 1함대에서 준비해간 선물 등을 전달하며 격려한 후 오후 4시 30분께 독도에서 떠났다. 한편, 해군 1함대는 9일 함정과 고속단정 등을 울릉도에 투입시켜 영토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조준호 기자 cjh@kyongbuk.co.kr

© 경북일보 & kyongbuk.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눈치 본다고 우리 땅에 군인도 못 보낸 역대정부들 이제는 정부가 눈치 덜 보는 것 같군요.

독도에 20가구 횃집을 해서 먹고 살게 하자..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소식지 편집자

日 ‘독도 일본땅 표기’에 MB ‘기다려달라’고 했다

독도소식지 13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한번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의 후손이 사용해야 할 독도입니다. 당신이 회원이 되면 독도는 지켜집니다.

편집을 도와주신 황성일사장님 감사 드립니다.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ds5ean@naver.com

후원 하실 분 법인통장 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사수연합회 회원 가입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		
전화	(주택)	(직장)	(휴대폰)
주소	(주택)	우편번호 :	
	(직장)	우편번호 :	
직업(명)	소속단체 :		
E-mail			
참고로 기록 합니다.			
년납 ()	월납 ()	회비	자동 : 이체 ()
자원봉사 =년 회 (할 수 있음) (할 수 없음)		납부	수납 : 현금 ()

"우리 땅 을 지키기 위하여 조금의 힘이라도 보태는 회원이 되기 위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독도사수연합회장 귀하

참고사항: 회비는 월1,000원 이상으로 자동 이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회원은1만원 이상)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예금주: 독도사수연합회

우편번호: 607-809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로 63번 다길 35(명장동)

전화: 051-782-9174. 독도 이상훈 손전화 010-6504-6510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E-mail : ds5ean@naver.com lsh54a@hanmail.net 보내세요.

아래 서명운동을 하는 이유

일본은 국제재판을 해서 독도를 뺏으려 한다. 국제재판을 안 하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때를 생각해서 국제재판에 이기려면 독도 연구를 많이 해야 이길 수 있고 사람이 많이 살아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독도의용수비대를 잘 모셔야 이기며 독

도바다가 공동수역이면 재판에 더욱 불리하다. 정부가 하면 우리국민들이 서명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안 하니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론이 되면 정부는 투표 할 때 표를 의식해서 할 것이다. 서명 많이 하면 여론이 된다. 복사해서 서명 받아 보내 주세요 편집자

독도를 지키기 위한 청원서

(아래 서명인은 아래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 합니다.)

1.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3. 독도의 관광지개발을 통하여 관광수입과 함께 국 내 · 외에 홍보 해 주십시오.
4. 독도를 지킨 의용수비대를 국가최고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기려주십시오.
5. 잘못 맺어진 신 한 · 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여 배타적경제수역주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순번	성명	주소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서명운동자)
네이버독도사수대 http://cafe.naver.com/docdoinkorea.cafe
보낼곳 607-809 부산시 동래구 명장로 63번 다길 35(명장동)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477-16)
독도사수연합회 E-mail : ds5ean@naver.com HP : 010-6504-6510 독도 이상훈